

## 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겔37:1-14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하나님만 미리 예언할 수 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예언이 전혀 없다. 할 능력이 없다. 창조할 능력도, 구원할 능력도(렘10:11-12)

예언: 메시아 예언, 이스라엘 예언, 이방 국가들 예언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예언이 많다.

1. 사방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겔34:13).
2. 다시 히브리말을 사용한다(슥3:9), 벤 예후다(Eliezer Ben Yehuda, 1858-1922), 히브리말 복원,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3. 이스라엘 국가 탄생(사51:3; 66:7)

많은 대언자들: 에스겔은 재림 전 이스라엘의 부활과 천년왕국 성전을 가장 잘 묘사함

기록자: 에스겔, 기록 시기: 주전 560년경, 성격: 대언, 기간: 22년 이상

이름: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를 뜻한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93회나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니라."는 표현과 함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였다.

오늘은 겔37장, < >, 이스라엘의 회복, 개인, 교회, 국가의 회복

### 배경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 포로 시대 초기인 주전 590-560년경이었다. 바빌론 포로 시대(BC 606부터). 에스겔은 이미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상태, 그가 바빌론에서 유다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유다 왕국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집트 파라오느고의 군대는 주전 605년경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였으며 그 이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다. 사악한 여호야김 왕은 대언자들을 박해하고 유다 민족의 영적 타락을 가져왔으며 폭정을 행하였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오기 전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진은 석 달을 다스린 뒤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였다. 예루살렘을 약탈한 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수천 명의 상류층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7년 전부터(BC 593년경)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적어도 22년 이상 사역을 수행했다.

### 하나님의 백성의 배도와 심판 그리고 포로 생활

BC 2000년경 아브라함, 야곱(이스라엘) 12지파, 이집트 포로 생활

BC 1500년경 이집트 탈출, 율법 수여

BC 1000년경 다윗의 통치, 그 뒤 백성의 교만, 무지, 위선, 권력자들의 학정,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 타락으로 결국 BC 606년 바빌론 포로 생활, 제사장, 백성, 대언자, 왕 모두 타락함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 남왕국 유다 패망,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겔37:11; 33:10).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다. 그러나 대언자들은 그들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 예언하였다.

예레미야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렘29:10)

에스겔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신다(겔11:17; 20:34, 41-42; 28:25)

소망이 있으면 살 이유가 있다. 반대도 사실이다.

대언자 에스겔은 1-35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36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미래의 일

단순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평강

1. 유대인들 귀환, 2. 땅이 정결하게 됨, 3. 새로운 성전과 주님의 영광의 임재  
다음의 네 단어: 회복, 정결하게 됨, 부활, 통일

## 1. 땅의 회복(36:1-15)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창12:1-3; 13:14-18; 15:7-21)

이것은 소유권, 그러나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레26)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요3:16; 엡2:8-9).  
그런데 구원의 삶을 기쁘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후6:18-7:1).  
안 그러면 징계(히12),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종종 징계를 받았다. 유다  
땅은 바빌론에 의해 초토화됨

1. 미래에 그 땅이 고쳐지고 다시 많은 소출을 낸다(8-9). 이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레26:3-5)
2. 또한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안전한 땅이 된다(10-12). 지금까지 역병, 들짐승, 전쟁 등이 나라를 망침, 그러나 회복됨,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3. 이스라엘 땅이 다시는 사람들을 삼키지 않는다(12-14). 과거에 산들의 산당에서 이교도들의 신,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 이런 일 다 사라진다. 40-4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최종 성전이 선다.

(\*) 1948년 5월, 이스라엘 독립, 그 이후로 땅을 많이 회복하였다. 사막 관개, 식목, 그래서 황폐하던 땅이 많이 변함,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사35:1-2).

## 2.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변화시킴(36:24-38)

1. 그들의 죄들에서 정결하게 함(25, 29, 27:23), 렘31:31-34
2.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준다(26).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신5:29).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돌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함(렘31:31-33).
3. 그들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36:27).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4.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겔36:28). 언약의 갱신 같다.
5. 인구의 증가(37-38), 34장 하나님은 백성을 양들로 표현하심,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빌론 침략으로 유대인들 인구가 많이 줄어 들, 그러나 다시 늘어남,

## 3. 국가의 부활(37:1-14)

이스라엘 국가는 남북으로 쪼개졌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유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부터 묘사되는 것들은 구현된 적이 없다.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  
에스겔은 죽어 있던 민족 국가가 부활하고 쪼개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1. 마른 뼈 골자기(1-3),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하려고 그것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심(2), 이 뼈들이 살겠느냐?(3)
2. 죽은 군대(4-8), 숨을 불어넣게 함
3. 살아 있는 군대(9-14),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유대와 이스라엘, 12지파), 12절: 이 뼈들이 부활함. 이것은 사66:7-9에도 기록되어 있다. 일단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 재림의 때가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슌12-14장 참조).

자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어졌으므로(롬15:4) 오늘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 한다.

## 4. 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3)

### 1.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대로 수태되어 태어남

죄인으로 태어남,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렘13:23)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엡2:1),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질문: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 숨이 들어가면 살 수 있다(5). 그러면 새롭게 새 사람이 형성된다(6).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맞이하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는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기 바란다.

2. 구원받았으나 성화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구원은 태어나는 것, 그 뒤에는 자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라는 것은 나, 죄, 마귀와 투쟁하며 이기고 나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세사일로 인해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분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눅4:6)

3.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암, 불면증, 공황장애 등 어려운 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된다.

요일5:14-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약5:15).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약5:16).

4.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내며 왕과 양반들의 중화사상과 폭정으로 전 국민의 3-40퍼센트가 노비가  
되는 고통을 겪었다. 중국을 의지하면 이집트처럼 우리를 찌를 것이다. 특히 공산당 No!  
일제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들린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다. 성경의 하나님의 자유로 된다.  
미국의 원자폭탄 2방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되었다.

건국을 부인하면 안 된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바탕으로 이 나라는 건국되었다.

2년 뒤 6.25 전쟁 3년,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킴  
박정희 대통령 출현, 5000년 역사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최고로 잘 사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30-40년 동안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진지전에 의해 공산화일보 직전  
WCC 등 폐해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들린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다. 교회가 살면 가능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동성애 낙태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아 가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여,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대로 아이들 키우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떼지 말라(갈5:1).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는다. 같이 기도하자.

대하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